

이사장 중임제 개정 시도! 재단이사장은 장기 집권의 '욕망'을 버리고, 정관의 '민주성'을 수호하라

오는 19일 개최될 재단이사회의 안건 가운데 또 다시 믿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바로 '이사장 2년 단임제'를 '중임 가능'으로 변경하려는 정관 개정 시도다. 이는 CBS의 민주적 운영과 권력 견제의 핵심 장치를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퇴보이자, 특정 인물의 장기 집권을 위한 파렴치한 '꼼수'다.

CBS 재단이사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제한해 온 것은 특정 교단이나 인물이 CBS라는 공적 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이사장은 차기 선출을 의식해 이사회를 자신의 세력으로 채우려 할 것이며, 이는 곧 조직의 경직과 부패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사장직에 '중임'의 길을 열어두려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포장될 수 없는 개인적 욕심일 뿐이다. “한번 해봤으니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오만한 논리는 민주적 교체와 혁신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CBS는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사장 자리는 권력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헌신하고 물러나는 자리여야 한다. 또한 해석에 따라서 현재 이사장이 임기를 늘려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닦으려 하는 것인가?

우리는 재단이사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사장 중임제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단임제 원칙을 고수하라!
특정 인물의 장기 집권을 위해 정관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중단하라!
재단 이사들은 이사장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말고, CBS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안건을 부결시켜라!

2026. 3. 17.